

2010 풀 시즌 개막전

공지의 날

2010.04.16 - 05.30

풀 2010. 04. 16. 금 – 05. 30. 일 45일간
꿀 2010. 04. 16. 금 – 09. 30. 목 꿀풀 1기 프로젝트

Pool
풀

너무나 잘 아는
순환의 원리를 위하여
나는 피로하였고
또 나는
영원히 피로할 것이기에
구태여 옛날을 돌아보지 않아도
설움과 아름다움을 대신하여 있는 나의 긍지
오늘은 필경 긍지의 날인가 보다
...
피로도 내가 만드는 것
긍지도 내가 만드는 것
그러할 때면은 나의 몸은 항상
한치를 더 자라는 꽃이 아니더냐
오늘은 필경 여러 가지를 합한 긍지의 날인가 보다
암만 불러도 싫지 않은 긍지의 날인가 보다
모든 설움이 합쳐지고 모든 것이 설움으로 돌아가는
긍지의 날인가 보다
이것이 나의 날
내가 자라는 날인가 보다

For principles of circulation
that I am very well aware of
I felt fatigue,
Also knowing
I'll be fatigued eternally
Without looking back the past
I find my confidence instead of grief and beauty
Today must be the day of confidence after all
...
It is I who create the fatigue
It is I who create the confidence
Then, isn't my body a flower
Growing up an inch more?
Today must be the day of confidence after all.
The day of confidence, calling in pleasure
All grief becomes one, and everything returns to the grief
This must be the day of confidence.
This is my day
The day I grow

故 김수영(1921-1968) '긍지의 날'(1955. 2)
The Late Kim Su-young (1921-1968) 'Day of Confidence' (1955.2)

2010 Pool Season Opening Exhibition

Day of Confidence

2010.04.16 - 05.30

pool 2010. 04. 16. Fri. - 05. 30. Sun. 45 days
ccul 2010. 04. 16. Fri. - 09. 30. Thur 1st ccul pool project

Pool
풀



하하하 下下下(낮추고 낮추고 낮추기) 프로젝트 – 김상돈, 불협화음 정원, 2010,
폐 플라스틱 대야 화분과 입양화분, 기증 씨앗으로 만든 풀 정원 및 조경 세부 © 풀, 서울

HAHAHA 下下下 low low low project-Garden of Discord, 2010, Kim Sang-don,
made by used plastic pots, adopted flowerpots, and donated seeds, detail view © pool, Seoul

일시

풀

2010. 04. 16. 금 – 05. 30. 일 45일간

매주 월 휴무, 화-일 10:00 - 18:00

꿀

2010. 04. 16. 금 – 09. 30. 목 꿀풀 1기 프로젝트

매주 월 휴무, 화-일 11:00 – 21:00

개막

2010. 04. 16 금

오후 05:00 풀

장소

풀

서울시 종로구 구기동 110-803

T 02 396 4805

F 02 396 9636

www.altpool.org

altpool@altpool.org

꿀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683-31

가슴라운지

M 010 3860 7972 / 010 2557 7251

꽃땅 빠, 가슴 스튜디오

M 010 750 25515 / 010 6475 9868

http://cafe.naver.com/itwhoney

개막 프로그램

2010. 04. 16 금

오후 5 : 00 마실 담화, 풀 구기살롱
(초대작가 : 하하하 프로젝트 팀,
꿀풀 프로젝트 1기)

오후 6 : 00 오프닝 쑈(초대작가 : 안데스), 풀

오후 7 : 00 개막 리셉션

오후 8 : 30 풀에서 꿀로 이동(차량 대절)

오후 9 : 00 꿀 오픈 음악, 무용공연
(이동기와 꿀, 아나킨, 아리랑,
박나훈, 푼돈들 총 5팀)

참여 작가

강홍구, 권용주, 공성훈, 고승욱, 구본창, 구성연, 권순영,
김기수, 김대수, 김범, 김보중, 김상돈, 김상진, 김옥선, 김용익,
김지원, 김홍빈, 김홍석, 김형관, 노재운, 노충현, 모토 Motoe,
믹스라이스, 박강원, 박병춘, 박찬경, 방정아, 배영환, 송상희,
신은경, 안규철, 안데스, 윤정미, 윤지원, 이수경, 이수성,
이은종, 이인희, 이제, 이지아, 임민욱, 임정규, 임흥순,
정서영, 정덕영, 조습, 조해준, 주재환, 주황, 최원준, 최정화,
최진욱, 플라잉시티, ps, 황세준, 허윤희 (이상 57인 개인/팀)

공동 기획

고승욱, 김희진, 최정화, 황세준 (가나다 순)

기획사무국

디렉터 김희진

객원 큐레이터

강유미, 김진주(출판, 교육, 아카이브),
권진(퍼블릭 프로그램)

스페이스 매니저 강동형

행정 매니저 하명수

도움주신 분

감윤경, 고승욱, 길예경, 김기수, 김용익, 김현진, 남상수,
멀티텍, 박찬경, 박현태, 앤츠실내건축, 양혜규, Eungie Joo,
이근용, 이제, 아이웨딩 네트웍스, 정덕영, 정석우, 조건영,
조습, 조지은, 최원준, 퍼블릭 아트 고물상, 안미희, 이영욱,
서숙자, 최정화, 황세준

번역

권진

디자인

장용석 www.jangyongseok.com

사진

김상돈

후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서울문화재단

Arts Council Korea

Seoul Foundation for Arts and Culture

<긍지의 날> 개막과 함께 대안공간 풀의 기관 명칭이 "풀"(국문), "art space pool"로 변경됩니다.

이 인쇄물은 서울문화재단의 시각창작 활성화지원-기획프로젝트 지원기금을 보조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Date

pool

2010. 04. 16. Fri. - 05. 30. Sun. 45 days

Tue. - Sun. 11:00 - 19:00, Closed on Mondays

ccul

2010. 04. 16. Fri. - 09. 30. Thur. 1st ccul pool project

Tue.-Sun. 11:00 - 21:00, Closed on Mondays

Opening

2010. 04. 16. Fri. 5:00 P.M. pool

Venue

pool

110-803 Gugi-dong, Jongno-gu, Seoul

T 02 396 4805

F 02 396 9636

www.altpool.org

altpool@altpool.org

ccul

683-31 Hannam-dong, Yongsan-gu, Seoul

Gaseum Lounge

M 010 3860 7972 / 010 2557 7251

ccot bbang bar, Gaseum Studio

M 010 750 25515 / 010 6475 9868

http://cafe.naver.com/itwhoney

Opening Program

2010. 4. 16. Fri.

5:00 P.M. *Masil* Talk
(Invited Artist : HAHAHA 下下下 low low low Project, 1st ccul pool project), Gugi Salon

6:00 P.M. Opening Show
(Invited Artist : andeath), pool

7:00 P.M. Opening Receptions, pool

8:30 P.M. Transport from pool to ccul
(Vehicle reserved)

9:00 P.M. Opening Performance, ccul
(Invited performers: Lee Dong-gi and ccul, Anakin, Arirang, Park Na-hoon, Poondondeul)

Co-Curators

Choi Jung-hwa, Hwang Se-jun, Hee-jin Kim, Ko Seung-wook (in alphabetical order)

Design

Jang Yong-seok www.jangyongseok.com

Photography

Kim Sang-don

Translation

Kwon Jin

Participating Artists

Kang Hong-gu, Kwon Yong-ju, Kong Sung-hoon, Ko Seung-wook, Ku Bon-chang, Ku Sung-yeon, Kwon Soon-young, Kim Ki-soo, Kim Dae-soo, Kim Beom, Kim Bo-joong, Kim Sang-don, Kim Sang-jin, Kim Ok-sun, Kim Yong-ik, Kim Ji-won, Kim Hong-bin, Kim Hong-suk, Kim Hyung-kwan, Roh Jae-woon, Roh Choong-hyun, Motoe, Mixrice, Park Kang-won, Park Byung-choon, Park Chan-kyoung, Bang Jung-ah, Bae Young-hwan, Song Sang-hee, Shin Eun-kyoung, Ahn Kyu-chul, andeath, Yoon Jung-mi, Yoon Ji-won, Lee Soo-kyoung, Lee Soo-sung, Lee In-hee, Lee Eun-jong, Lee In-hee, Lee Je, Lee Ji-ah, Lim Min-wook, Lim Jung-kyu, Lim Heung-soon, Chung Seo-young, Chung Duk-young, Cho Seub, Cho Hae-joon, Choo Jae-hwan, Choo Hwang, Choi Min Hwa Chul Hwan, Choi Won-joon, Choi Jung-hwa, Choi Jin-wook, flyingcity, ps, Hwang Se-joon, Heo Yoon-hee (57 individuals/groups)

Sponsors

Arts Council Korea

Seoul Foundation Arts and Culture

Supporters

Kam Yun-kyung, Ko Seung-wook, Kil Ye-kyoung, Kim Ki-soo, Kim Yong-ik, Kim Hyun-jin, Nam Sang-su, Multitech, Park Chan-kyoung, Park Hyun-tae, Interior Design Antz, Yang Hye-gyu, Eunjie Joo, Lee Keun-yong, Lee Je, iWedding Networks, Chung Duk-young, Cho Kun-young, Jo Seub, Cho Ji-eun, Choi Won-joon, Public Art Gomulsang, Ahn Mi-hee, Lee Young-wook, Seo Sook-ja, Choi Jung-hwa, Hwang Se-jun

Curatorial Office

director Heejin Kim

associate curators

Yumi Kang, Kim Jinjoo(Publication, Education, Archive)

Kwon Jin(Public Program)

space manager Donghyeong Kang

executive manager Ha Myoeng-su

As with the opening of <Day of Confidence>, former “alternative space pool” informs the change of its official name into “pool(풀)” in Korean and “art space pool” in English.

This material is printed by the support of Seoul Foundation Arts & Culture.

풀이 2010년 시즌 개막전으로 <긍지의 날>을 소개합니다.

<긍지의 날>은 풀의 신임 디렉터(김희진, 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인사미술공간 큐레이터) 영입과 더불어 보다 확장되고 다양해진 풀의 공간과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2010년 시즌 개막전이자, 풀과 기획 협업 파트너쉽을 맺은 신생 복합문화 공간 꿀(대표 최정화)의 개관전입니다. <긍지의 날>은 공간 재구성 프로젝트, 아카이브 프로젝트, 퍼포먼스 이벤트, 음악 무용공연, 마실 담화 등 총 6부로 구성되며 구기동 풀과 한남동 꿀 양쪽 공간에서 4월 16일 당일 연이어 개막됩니다.

풀은 설립 십 주년을 넘기면서 권위적인 문화제도정치와 시장경제체제가 주도하는 창작현실 속에서 미술인들에게 과연 창작과 기획에 대한 긍지confidence가 남아있는가 하는 현실적인 자문에서 <긍지의 날>을 준비하였습니다. 창작주체들과 미술기관들이 찾아야 할 긍지의 원천은 무엇일까. 그 긍지는 누가 지켜주고 누가 만들어 주는 것일까. 미술기관과 작가들이 서로 긍지를 키워갈 수 있는 관계는 어떤 방식이고 어떤 성격의 것일까. 그렇다면 그 긍지는 어떻게 보호되며 이어져서 이 사회에서 어떤 힘을 발휘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 하에서 우선 풀은 미술기관의 '맥락'인 기관의 물리적 공간, 작가 커뮤니티, 기관 아젠다, 아카이브, 기관 네트워크를 개방하고 이를 문화 생산 주체들 간의 연결, 공유, 상호 형성, 자립이라는 메커니즘으로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구기동 풀에서 소개되는 <긍지의 날>의 중심은 '하하하 下下下 Low Low Low 프로젝트'(권용주, 김상돈, 김상진, 이수성, 최정화)입니다. '하하하 下下下 프로젝트'는 새것으로 위장하고 감추는 표준형 지상주의의 재개발 계획과는 대조적으로, 낡았지만 내공 있는 일상생활환경을 미술공간에 되살리는 공간복구작업 입니다.
지난 겨울 내 작가들은 풀의 화이트 큐브 껍질을 벗겨내고 풀의 주변 환경 맥락을 고려하며 전면 재활용, DIY, 로우테크 방식으로 풀의 본 모습을 복구하여냈습니다. 이제 구석구석 숨어있던 공간들과 유기적으로 연결되며 주변의 장소적 맥락에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풀의 공간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풀은 또한 국내에서 보기 드문 아티스트 런artist-run 스페이스로서, 창작 주체들의 공동체 기관이라는 전통을 십년 간 이어왔습니다. <긍지의 날>에서는 따라서 풀의 작가 커뮤니티와 아카이브를 재구성하여 동시대 맥락에 연결하고 공유하는 아카이브 프로젝트들(ps, 이지아)이 소개됩니다. 이는 어느 일개 기관의 맥락이라는 경계를 넘어 창작 주체들의 상상력과 실험, 비판성의 언어가 기능성, 효용성, 물질적 환금성, 계량적 평가 위주의 제도 현실 언어를 어떻게 견제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의식으로 이어집니다. 풀은 연대에 기초한 작가 커뮤니티와 아카이브, 기관의 전통과 같은 창작의 정신적 자산들이 발휘하는 힘을 보여주고자 합니다.

풀의 재개관과 동시에 풀과 기획 협업 파트너쉽을 맺은 신생 복합문화 공간 '꿀'이 개관합니다. 한남동에 위치한 꿀은 빠와 카페, 레지던스와 꿀풀(대안공간 풀의 프로젝트 실험 공간), 가슴 라운지가 서로 간섭하며 공존하는 하나의 유기체 입니다. 꿀은 번식하는 균처럼 시각예술, 건축, 디자인, 퍼포먼스 등을 교차시키며, 이것들이 또 다시 서로 엉기고 번져서 새로운 네트워크를 구성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러한 "생활협동활동"은 미술과 일상, 창작과 생활의 경계를 넘어 결과보다는 과정과 만남 그리고, 공존 자체의 생산적 의미를 촉발합니다. 꿀은 예술활동과 생계, 생활 대중과 미술인 사이의 불통 구조에서 대안의 길을 모색하는 문화생산자들의 실험을 담고자 합니다. 꿀과 풀은 향후 2년간의 기획 파트너쉽을 맺고, 풀은 꿀 내에 별도 "꿀풀" 전용공간을 운영합니다.

"꿀풀 프로젝트"는 6개월 단위로 5-6인(팀/개인) 내외의 작가들을 초대하여 작가들이 스스로 기획하고 운영하는 1인 경영 스페이스 네트워크 공간을 지향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개관에는 꿀풀 1기 프로젝트에서 7인의 작가 팀/개인, 그리고 꿀 자체에서 기획하는 4인의 작가 팀/개인이 소개됩니다.

그밖에 풀에서는 작가 안데스의 재개관 축하 패션쇼와 국내외 큐레이터와 작가들이 초대되는 마실 담화가 열리며, 풀의 새로운 기관 로고가 실린 국영문 홈페이지, 풀의 년례 국제교류 프로그램 "횡단 Transversal"이 개시됩니다.

Art Space Pool(hereafter pool) announces the opening of <Day of Confidence>.

<Day of Confidence> is the 2010 season opening exhibition of pool, introducing the expanded and re-designed space and programs with newly appointed director (Kim Hee-jin, former curator of Insa Art Space, Arts Council Korea), as announcing the dual-opening with art space ccul (representative Choi Jung-hwa), aligning a new curatorial partner of pool. On April 16th, the aspiring exhibition <Day of Confidence> explores six evolving chapters; a space renovation project, an archive project, performance events, the Masil Talk at both sites in a string, pool in Gugi-dong and ccul in Hannam-dong.

Reflecting the historical enterprise pool has built so far for over a decade, 2010 pool starts its new chapter by questioning if there is any confidence of creation left for artists and cultural producers in the realm of institutionalized cultural capital and a market-led economy. And after all, where can innovators and organizations find the confidence? Who is keeping and creating this confidence? What kind of and in which way should artists and art organizations build their relationship each other to enhance the confidence? Then, how can the confidence be protected and sustained to be empowered in this society? By answering these questions, pool is opening its physical space, artist community, organizational agenda, archive and institutional network, of all which become the 'context' of an organization, for stimulating the mechanism of inter-connecting, sharing, interactive and self-reliance between individual subjects.

The main work of <Day of Confidence> in pool of Gugi-dong is the 'HAHAHA(下下下 low low low) Project' (Kwon Yong-joo, Kim Sang-don, Kim Sang-jin, Lee Soo-sung, Choi Jung-hwa). The 'HAHAHA(下下下 low low low) Project' is the space renovation project for recovering old but sustainable daily environment of art space in contrast with the standard-oriented development plan which absolutely disguises the memory of space and time. Over the last winter, the project artists restored the original look of pool by using recycling, DIY and low-tech methods to peel the white cube structure. The newly born space is now having surrounding friendly atmosphere and inter-relates with the environmental context. Organically interconnecting the hidden spots, the pool space flows through the neighboring vacant at every corners.

It has already been ten years that pool has sustained itself as one of rare artists-run contemporary art spaces as a cultural producers community. <Day of Confidence> therefore introduces two archive projects by ps and Lee Jia, which reconstruct the artists community and collections of archive at pool and connects its idea of the contemporary context to be shared. This is beyond the boundaries of the context of a specific organization, but rather leads to be aware of an issue: how the imagination and experimentation of creative subjects and the critical language reins in the realistic system. Beyond an institutionalized boundary, this leads to the critical awareness how can the art imagination, experimentation and language of creators restraint the utilitarianism and quantitative evaluation of the language used by society.

Based on its communal relationship, pool is pleased to present the power generated from a spiritual inheritance of organizational tradition, such as artists community and collections of archive. With the season opening of pool, a new curatorial partner, the 'ccul 꿀 (means honey)' opens. Located in Hannam-dong, ccul is a kind of organic space where bar, cafe, studio, 'ccul pool'(꿀풀 means honey grass, pool's experimental art project space) and Gaseum lounge interconnects each other for co-existing. Ccul intersects visual art, architecture, design and

performance, just like proliferous bacteria. This “living collective activity”, which comes beyond the boundary between art, creation and everyday life scene, triggers the productive meaning between process, encounters, sharing and coexistence, rather than focusing on the result only. Ccul is going to embrace the experiments of cultural producers who search for alternative from the disconnected structure between art activities, livelihoods, everyday life’s citizen and artists.

Aligning a curatorial partnership for following two years, pool organizes the “ccul pool” project space in ccul. In every 6 months, 5-6 artist individuals or teams are going to be invited for the “ccul pool project”, which aims at self-management space network of artists themselves. For the opening, there are 7 artist teams and artists. from the 1st stage of ccul pool project and 4 artists invited by ccul.

In addition, there are the opening show by andeath, the *Masil* Talk inviting local and international artists and curators, and a new bilingual homepage with new Institution’s Identity and a yearlong international network program “Transversal” of pool will be started.



<긍지의 날> 세부 프로그램

<Day of Confidence> Program Details

1부

공간 재구성 프로젝트 ‘하하하 下下下 low low low (낮추고 낯추고 낮추기)’

장소 종로구 구기동 풀 전 공간 **초대작가** 권용주, 김상진, 김상돈, 이수성, 최정화(아트 디렉션)

연계 프로그램 ‘Potluck 품앗이’ 화분 입양, 씨앗 교환, 미술인 조경, 미술인 생협

‘하하하 下下下 프로젝트’는 우리의 생활현실을 감추며 위장하는 비현실의 껍질을 벗겨내고 장소가 지닌 시공간의 미학을 살려내는 反 재개발 프로젝트입니다. 초대작가들은 주택가 생활환경 속에서 다소 유리되어 있던 풀의 내·외부에 개입하여 우선 2006년 풀 입주 당시 만들어진 화이트 큐브 껍질을 벗겨내고 70년대 목공이 손으로 지은 집의 본래 구조를 드러내었습니다. 낡았지만 튼실한 목공 구조가 드러나면서 작가들은 외부 용역을 일체 거부한 채, 지난 겨울 48일간(2010. 02. 05 - 03. 24) 낡은 것과 새 것, 예술적 가공과 자연스러움, 상상력과 기능성, 미술 공간과 일반 가옥, 건축과 미술 간의 아슬아슬한 줄다리기 작업을 해왔습니다. 작가들은 단일 기획자가 정한 주제에 맞는 ‘작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작품 생산 구조 대신, 시종일관 동료 작가와 상의하고 주민들에게 듣고 또 작가 스스로의 직관에 질문하며 현장 특화적인 공동 작업과 개별 작업을 병행하였습니다. 전면 DIY, 재활용 원칙에 따라 재구성된 풀은 고 김수영 시인의 ‘풀’처럼 낮고도 강인하며 곳곳에 미술인들의 사연과 손길이 닿은 모습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창작 활동과 일상 생활, 작품과 작업, 작업장과 전시장 사이에 놓인 불필요한 격을 반대하며 이 둘 간의 공존과 상생을 실제 미술기관 공간에 실험해 보는 유쾌하고 인간적인 프로젝트입니다.

Part 1

Space Renovation Project ‘HAHAHA(下下下 low low low)’

Venue pool in Gugi-dong, Jongno-gu

Invited Artists Choi Jung-hwa (Art Director), Kim Sang-jin, Kim Sang-don, Kwon Yong-joo, Lee Su-sung

Related Program ‘Potluck Pumatyi’ flowerpot adoption, seed exchange, artists’ gardening, artists’ life cooperative commune

‘HAHAHA(下下下 low low low) Project’ is a counter-redevelopment project to reborn the aesthetics of original time and space by peeling the disguised reality in our environment. Behind the pools’ white cube which had been designed for the move in 2006, the artitst were engaged in the interior and exterior spaces of pool situated the residential area of Gugi-dong and recovered the original structure built by carpenters in 1970s. Since discovering the old yet sturdy wooden structure, the participating artists had undergone the tricky process which required the balance between old and new, artistic manufacturing and natural beauty, creative imagination and realistic teasibility, art space and ordinary residence, and architecture and art, without any outsourcing service, for 48 winter days (2010. 02. 05 – 03. 24). Instead of the ordinary art production system of which artists usually produce for a subject chosen by a curator, the project members had to develop a site-specific collective work as well as individual specialities, all of which required consistent discussion with each other, communication with neighborhood, questioning with artistic intuition. Following the absolute DIY and recycling method, the reconstructed pool is low, strong and touched by artists, just like the ‘pool(grass)’ in the poem by Kim Su-young. Against the unnecessary ceremony between art activity and everyday life, between art work and labor and between work space and gallery, the project is an exhilarating and humane trial of an organizational experiment for having the coexistence and a mutual collabor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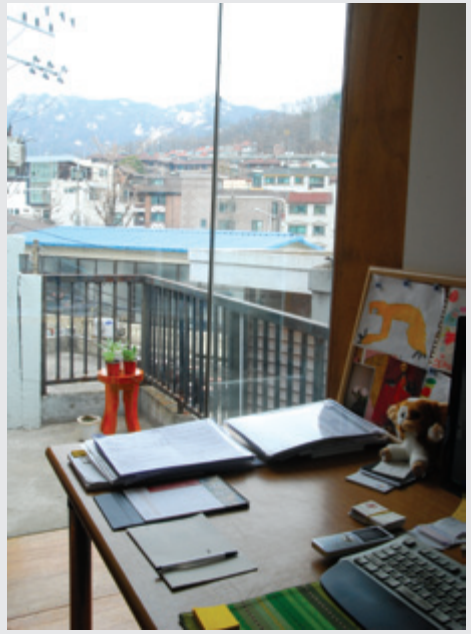
옛 가옥의 벽과 구조를 그대로 보존하며 일부 벽을 개방하고 부분 미장과 코팅으로만 마감한 풀 F1 구기살롱과 풀 F1 전시장 실내

F1 Gugi Salon and F1 Gallery, pool preserved the walls of original structure
opened walls partly, finishing with last plastering and coating



풀 F1 구기살롱내 탈색소파 (최정화)와 기둥 게이트

decolorized sofa (by Choi Jung-hwa) and cement column gate
at F1 Gugi Salon, pool



창고를 개조한 F1 사무실

office renovated from a storage at F1 Gugi Salon, pool









풀 B1 사무실 내 아카이브 응접실, 소파(최정화), 구름들-챌린저 / 구름들-바그다드(2005)(노재운), 건축(조건영)

Archive Lounge in B1 office, Couch (by Choi Jung-hwa), Clouds-Challenger/ Clouds-Baghdad (2005) (by Roh Jae-woon)
Architecture (Cho Kun-you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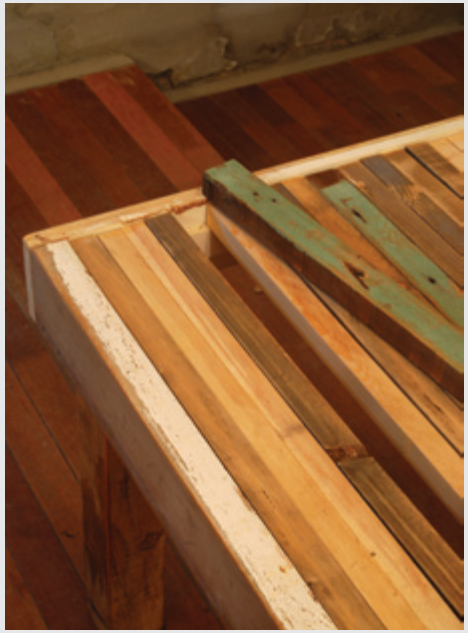
갤러리 철거 후 나온 벽체를 재활용해 만든 테이블 '새 벽' (김상진)

'New Wall' – table made by recycled walls from gallery (by Kim Sang-jin)



책장을 분해해 만든 테이블 '새 장' (김상진)

'New Cabinet' – table made by disassemblies of bookshelves (by Kim Sang-jin)



헌 문짝을 재활용해 만든 테이블 '새 문'(김상진)

'New Door' – table made of recycled doors (by Kim Sang-jin)



바닥 목재로 만든 테이블 '새 바닥' (김상진)

'New Floor' – table made with floor lumber (by Kim Sang-jin)





갤러리에서 나온 폐목재로 옥외창고 위에 지은 누각 '동동동' (권용주, 김상진 공동작업)

'Dongdongdong' (collective work by Kwon Yong-ju and Kim Sang-jin) a pavilion built on top of outdoor storage with waste lumbers from gallery, pool





거리 고양이들의 화장실이었던 풀 뒷마당을 철거한 갤러리 벽으로 마루 처리한 풀 뒷마당 마루 정원

This backyard garden, made by removed walls from gallery, used to be toilets of street cats.



폐 플라스틱 대야 화분과 입양화분, 기증 씨앗으로 만든 폴 전면의 '불협화음 정원'(김상돈), '어떤 기념비'(권용주)

'Garden of Discord' (by Kim Sang-don), made by used plastic pots, adopted flowerpots, and donated seeds &
'Better a live coward than a dead hero.' (by Kwon Yong-ju, 2009)



자생적 혹은 자족적 문화, 대화와 교류, 일시성, 머물기, 유사 지역성, 잠입, 위장, 지역 주민과의 친화, 지속가능성, 오지 않는 버스, 흡연실, 기다림, 그늘을 희구하는 작가들의 공간 설치 작업들. 코너 '버스 정류장'(이수성), '불협화음 정원'(김상돈), '어떤 기념비'(권용주)

Space installation work of artists who desire for the self-oriented culture, communication, network, momentary, staying, similar locality, stealth, camouflage, neighborhood with local residents, sustainability, a bus never comes, smoking room, waiting and shadow.
Corner 'Bus Stop' (by Lee Soo-sung), 'Garden of Discord' (by Kim Sang-don), 'Better a live coward than a dead hero.' (by Kwon Yong-ju),

2부

사운드 아카이빙 프로젝트 '첫사랑'

장소 풀 **초대작가** 이지아

'첫사랑'은 동시대 한국미술 아카이브인 작가론, 평론, 작업노트, 기획문, 인터뷰, 대담 등에서 발췌, 인용한 작가, 비평가 들의 발언과 생각을 모아 사운드 아카이브로 편집, 재구성한 프로젝트입니다. 작가는 풀이 보유한 문서 아카이브를 읽어보며 주요 인용구를 선정하고 그 인용구들을 성우 지망생 혹은 젊은 작가들이 대변하여 읽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작가는 1999년 설립 이후 풀에서 진행한 작가와의 대화, 세미나 등의 오디오 녹음 카세트 테이프나 동영상 아카이브를 모두 조사하며 그들의 생각을 새롭게 만났습니다.
1999년 대안공간 개관전인 최정화/정서영 2인전 '스며들다'의 작가 대담부터 미술비평연구회 개소식, 1999년 대안공간 풀의 주제기획전 '사지선답', '포럼 에이forum a', 故 박이소 작가론, 학술발표회, 한국근대미술사 평론집, 대안공간 네트워크 기획의 Artist Forum International 등의 아카이브를 접하며 작가는 문득 작가 민정기의 애창곡이라는 '첫사랑'의 노랫말을 떠올렸습니다.
'쓸쓸한 길에서/약속도 없이/우연히 마주치면/무슨 말을 할까요/세월이 흐른 뒤에..'
'첫사랑' 프로젝트는 오랜 세월 거듭되어 온 미술계의 시장과 제도, 창작 주체들의 작업생산, 소통, 유통 방식에 대한 대안적 제안을 들으며 격세지감이 아닌 세대공감을 일으킵니다. 이 세대공감이 우리 동시대 미술사의 지속적 실험과 창작현장의 경제적 현실 개선을 위한 작은 기운으로 작동되길 바랍니다.

사운드 아카이빙 외에 기관의 발전과 형성을 위한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도움을 주시길 원하시는작가분들의 응원으로 이 프로젝트에서 기금마련전이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짧은 기간 내에 작품을 기증해 주신 많은 작가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 드립니다.

참여작가

강홍구, 권용주, 공성훈, 고승욱, 구본창, 구성연, 권순영, 김기수, 김대수, 김범, 김보중, 김상돈, 김옥선, 김용익, 김지원, 김홍석, 노재운, 노충현, 믹스라이스, 박강원, 박찬경, 방정아, 배영환, 송상희, 안규철, 윤정미, 이수경, 이수성, 이은종, 이인희, 이제, 임민욱, 임흥순, 정서영, 정덕영, 조습, 조해준, 주재환, 주황, 최민화, 최원준, 최진욱, 플라잉시티, 황세준, 허윤희 (이상 45인 개인/팀)

Part 2

Sound Archiving Project 'First Love'

Venue pool **Invited Artist** Lee Jia

'First Love' is a project for the reconstruction of collected remarks and thoughts of artists and critics which are quoted from the reviews, artists notes, critical texts, interviews, discussions, papers and curatorial notes collected in pool archive. The artist read through the collections of documents, selected main quotations and asked the young artists to read them in their own voices. For the artist, this process of investigating audio records and video tapes of artist's talks and seminars became a chance to encounter with the older generations' thoughts. By starting from the inaugural two-persons' exhibition of former Alternative Space Pool in 1999, 'Soaked In' by Choi Jung-hwa and Chung Seo-young, the artist followed up through the series of documents collected in pool archive, including 'Sajisundap' exhibition catalogue, 'forum a' journal, 'studying the late artist Park Yi-so', art criticism conference booklets, criticisms on the Korean modern art history, 'Artist Forum International', etc. This series of encounters brought the favorite lyric of artist Min Jung-ki, 'First Love' to her mind.
'On a lonesome road / Of all of sudden / We face to each other / What should I say / As time goes by …'
The 'First Love' project, after listening to the series of alternative suggestions upon the repeated problem of art system, art institution, art production, work distribution and communication between creative producers, raise the sympathy between different generations, rather than the segregation. This sympathy hopefully works as a little energy for empowering sustainable art experiments and improving economic environment of the creative field.

Beside the sound archiving project, the fundraising show can be possibly exhibited with all the realistic and specified supports by artists. Once again, we appreciate all the artists who has donated their works in such a limited time.

Participating Artists

Kang Hong-gu, Kwon Yong-ju, Kong Sung-hoon, Ko Seung-wook, Koo Bon-chang, Koo Sung-yeon, Kwon Soon-young, Kim Ki-soo, Kim Dae-soo, Kim Beom, Kim Bo-jung, Kim Sang-don, Kim Ok-sun, Kim Yong-ik, Kim Ji-won, Kim Hong-suk, Roh Jae-woon, Roh Choong-hyun, Mixrice, Park Kang-won, Park Chan-kyoung, Bang Jung-ah, Bae Young-hwan, Song Sang-hee, Ahn Kyu-chul, Yoon Jung-mi, Lee Soo-kyung, Lee Soo-sung, Lee In-hee, Lee Eun-jong, Lee Je, Lim Min-wook, Lim Heung-soon, Chung Seo-young, Chung Duk-young, Jo Seub, Cho Hae-joon, Choo Jae-hwan, Choo Hwang, Choi Min Hwa Chul Hwan, Choi Won-joon, Choi Jin-wook, flyingCity, Hwang Se-jun, Heo Yoon-hee
(45 individuals/groups)

3부

인쇄물 아카이브 프로젝트 “비-규격-품 off-standard-work”

장소 풀 **초대작가** ps

미술기관과 그 전시장이라는 물리적 공간을 재가공하는 1부에 대한 댓구로, <긍지의 날> 3부는 풀이 지난 십여 년간 구축한 인쇄물 아카이브를 재가공하는 프로젝트입니다. 풀 아카이브 프로젝트는 앞으로 “아직도 낯선 그들”이라는 시리즈 명으로 년 2회 작가를 초청하여 풀 1층 구기살롱이나 사무실 등 가변 공간에 소개되며, 물질적 상품과는 다른 미술의 비가시적, 비물질적인 문화 자원인 작가들의 생각을 어떻게 아젠다 별로 재구성하여 자산으로 개발, 재생산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를 다루고자 합니다.
이번 재개관전에 소개되는 첫번째 아카이브 프로젝트 시리즈는 작가 ps를 초청하여 풀의 아카이브 자료들 중 형식화된 전시와 운동이 아닌 ‘품(형태인 동시에 일인 것, form as work/labor)’들의 계보를 찾아봅니다. 미술작가와 기획자라 호명된 개별자들이 말하고자 했던 생각들이 유통 혹은 등재되기 위해 규격에 어떻게 짜 맞추어지고 재단되었는가? 등록되지 못하고 남겨지거나 사라진 생각들, 수취인불명의 편지(death letter)는 무엇이었는가? 제도화 혹은 경제구조에 편입register 되지 않는, 혹은 못하는 작가의 말과 이미지는 어떻게 안타깝게 도태되거나 살아남아 되돌아오는가? 이 프로젝트는 규격에서 시원하게 벗어나거나 혹은 틈 사이로 미끄러진 반/비규격화 이미지와 말들로부터 작가 자신이 일상에서 혁명을 지속할 수 있는 생산성(혹은 생계력)을 찾아봅니다.

Part 3

Print Archive Project ‘off-standard-work’

Venue Gugi Salon **Invited Artist** p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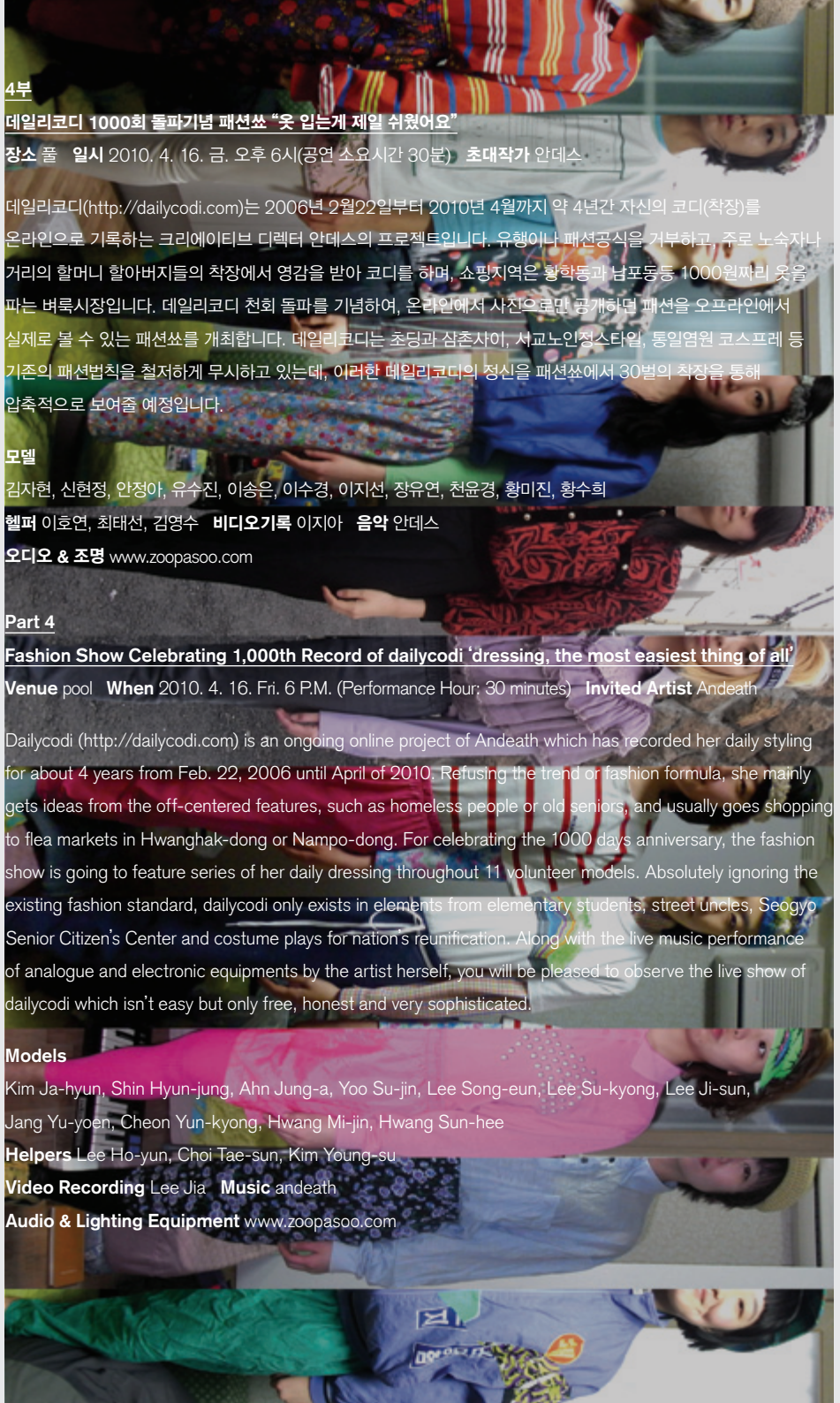
As a response to the re-process of physical space in art institution in part 1, the part 3 in <Day of Confidence> is a project to re-proceed the pool printed materials archive collected for last decade. Entitled “still strange, they are”, the series of project is going to invite artists twice a year to introduce the work in variable spots of pool, such as Gugi Salon and office, to deal with problematic issues; how can the invisible and immaterialized cultural sources of artists’ thoughts be reconstructed within different agendas for developing and reproducing as a cultural asset.

The first archive project introduced in this season opening exhibition, is inviting an artist collective ‘ps’. ps searches for the genealogy of ‘form (as work and labor)’ among the archive data which isn’t historically formalized as exhibition or movement. How were the thoughts and ideas of the individuals who are so-called artists and curators framed and edited by a standard, to be registered and distributed? What is the death letter of the ideas which disappeared? How were the words and images of artists which couldn’t be institutionized or registered within the economic system withdrawn, survived and recurred to us? Calling for the off-standard images and words, the artist seeks for a self-productivity to sustain daily revolution.





ps, 비-규격-품, 2010, 풀 인쇄물 아카이브 재생산을 위한 배열 © ps
ps, off-srandard-work, 2010, sample positioning for reproducing pool print archive © ps



4부

데일리코디 1000회 돌파기념 패션쇼 "옷 입는게 제일 쉬웠어요"

장소 풀 **일시** 2010. 4. 16. 금. 오후 6시(공연 소요시간 30분) **초대작가** 안데스

데일리코디(http://dailycodi.com)는 2006년 2월22일부터 2010년 4월까지 약 4년간 자신의 코디(착장)를 온라인으로 기록하는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안데스의 프로젝트입니다. 유행이나 패션공식을 거부하고, 주로 노숙자나 거리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착장에서 영감을 받아 코디를 하며, 쇼핑지역은 황학동과 남포동등 1000원짜리 옷을 파는 벼룩시장입니다. 데일리코디 천회 돌파를 기념하여, 온라인에서 사진으로만 공개하던 패션을 오프라인에서 실제로 볼 수 있는 패션쇼를 개최합니다. 데일리코디는 초딩과 삼촌사이, 서교노인정스타일, 통일염원 코스프레 등 기존의 패션법칙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데일리코디의 정신을 패션쇼에서 30벌의 착장을 통해 압축적으로 보여줄 예정입니다.

모델

김자현, 신현정, 안정아, 유수진, 이송은, 이수경, 이지선, 장유연, 천윤경, 황미진, 황수희

헬퍼 이호연, 최태선, 김영수 **비디오기록** 이지아 **음악** 안데스

오디오 & 조명 www.zoopasoo.com

Part 4

Fashion Show Celebrating 1,000th Record of dailycodi 'dressing, the most easiest thing of all'

Venue pool **When** 2010. 4. 16. Fri. 6 P.M. (Performance Hour: 30 minutes) **Invited Artist** Andeath

Dailycodi (http://dailycodi.com) is an ongoing online project of Andeath which has recorded her daily styling for about 4 years from Feb. 22, 2006 until April of 2010. Refusing the trend or fashion formula, she mainly gets ideas from the off-centered features, such as homeless people or old seniors, and usually goes shopping to flea markets in Hwanghak-dong or Nampo-dong. For celebrating the 1000 days anniversary, the fashion show is going to feature series of her daily dressing throughout 11 volunteer models. Absolutely ignoring the existing fashion standard, dailycodi only exists in elements from elementary students, street uncles, Seogyo Senior Citizen's Center and costume plays for nation's reunification. Along with the live music performance of analogue and electronic equipments by the artist herself, you will be pleased to observe the live show of dailycodi which isn't easy but only free, honest and very sophisticated.

Models

Kim Ja-hyun, Shin Hyun-jung, Ahn Jung-a, Yoo Su-jin, Lee Song-eun, Lee Su-kyong, Lee Ji-sun, Jang Yu-yoen, Cheon Yun-kyong, Hwang Mi-jin, Hwang Sun-hee

Helpers Lee Ho-yun, Choi Tae-sun, Kim Young-su

Video Recording Lee Jia **Music** andeath

Audio & Lighting Equipment www.zoopasoo.com

5부

마실 담화

일시 전시 기간 내 2-3회 **장소** 풀 F1 구기살롱

입장권 풀 회원에 한해 무료, 비회원 1회당 10,000원/1인, 전화/이메일로 사전 예약, 최대 30명 수용

altpool@altpool.org, tel 02 396 4805

초청자

03.30 화 오후 8:00

Eungie Joo(뉴욕 뉴뮤지엄 공공 및 교육 프로그램 디렉터/큐레이터), 비공식 마실 담화

04.16 금 오후 5:00

하하하 프로젝트팀, 꿀풀 프로젝트 1기 작가들(권용주, 김상돈, 김상진, 김홍빈, 윤지원, 임정규, 이수성, 최정화)

04.23 금 오후 5:00

만레이 수 Manray Hsu(타이페이 컨템포러리 아트센터 디렉터), 예정

*전시 기간내 추후 섭외되는 담화 초대인들은 풀 홈페이지www.altpool.org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Part 5

***Masil* Talks**

Date 2-3 times during exhibition **Venue** pool F1 Gugi Salon

Admission

Free for pool members, 10,000 won for non-member, RSVP via phone/e-mail, max. capacity of 30 people

altpool@altpool.org, tel 02 396 4805

Invitees

03.30 Fri. 8:00 P.M.

Eungie Joo (New Museum Public and Educational Program Director, Curator, New York), closed to the public

04.16 Fri. 5:00 P.M.

HAHAHA(下下下 low low low) project team, 1st ccul pool project team(Kwon Yong-ju, Kim Sang-don, Kim Sang-jin, Kim Hong-bin, Yoon Ji-won, Lim Jung-gyu, Lee Soo-sung, Choi Jung-hwa)

04.23 Fri. 5:00 P.M.

Manray Hsu (Taipei Contemporary Art Center Director), scheduled

*Please find more information from the website www.altpool.org for upcoming programs and issues.

6부

꿀, 꿀풀

일시 2010. 04. 16. 금 - 09.30(꿀 풀 프로젝트 1기 전시기간. 꿀은 월 휴무, 화-일 11:00-21:00)

장소 꿀

꿀풀 프로젝트 1기 초대작가 권용주, 김상돈, 김상진, 김홍빈, 윤지원, 이수성, 임정규

꿀 자체기획 초대작가 김형관, 박병춘, 모토 Motoe, 신은경

꿀

꿀은 2010년 풀의 시즌개막과 함께 개관하는 신생 복합문화공간(대표 최정화)으로서, "살 빠 Sal Bar"(1996-2008) 이후 '예술과 일상의 관계 회복'이라는 작가 최정화의 비젼이 농축된 또 하나의 제도에 대한 실천적 개입입니다. 꿀은 중국음식점, 쌀집, 꽃집, 사진 현상소, 직원숙소용 쪽방이 번식하듯 자라난 건물 원형을 그대로 보존한 공간에 꽃빵 빠와 가슴 라운지, 가슴 스튜디오와 "꿀풀"(풀의 프로젝트 실험 공간)를 갖추고 있습니다. 꿀은 '민간인의 조형의지와 조화로움, 과정은 결과보다 중요하다, 그들에게 기회를 주고 그들을 베끼자, 일상 생활, 실천, 일상 생활이 바로 현재 예술의 무대다 전쟁터다'라는 작가 최정화의 발언이 육화된 反 미술관입니다.



꿀(용산구 한남동 683-31) 외관

Exterior view of ccul (683-31 Hannam-dong, Yongsan-gu, Seoul)



가슴라운지 실내와 최정화의 가구 콜렉션

Interior of Gaseum Lounge and Furniture Collection by Choi Jung-hwa



꿀 가슴라운지에 설치된 모토 Motoe의 '콘과 함께CONICONI'(2010) 중 '의자-콘과 함께 chair coniconi'(앞), 김형관의 '무제 #9'(2008, 종이 위에 색 테이프, 130*186cm)(뒷 벽면), 최정화의 조명

'chair coniconi'(front) among the 'CONICONI'(2010) by Motoe installed in Gaseum Lounge, ccul
'Untitled #9' (2008), colored tapes on paper, 130*186cm(rear wall) by Kim Hyung-kwan, Lighting by Choi Jung-hwa



꿀 가슴라운지에 설치된 최정화의 가구(앞), 김형관의 '모드 #4, #5, #6, 2009, 종이 위에 색 테이프 각 118*62cm)(뒷 벽면)

Furniture designed by Choi Jung-hwa (front) installed in Gaseum Lounge, ccul
'Mode #4, #5, #6,' 2009, colored tapes on paper 118*62cm (rear wall) by Kim Hyung-kwan

Part 6

ccul, ccul pool

Date

2010. 04. 16. Fri. - 09.30. Thur. 1st ccul pool project(Tue.-Sun. 11:00 – 21:00 ccul Closed on Mon.)

Venue ccul

Invited Artists for 1st ccul pool Project

Kwon Yong-ju, Kim Sang-don, Kim Sang-jin, Kim Hong-bin, Yoon Ji-won, Lee Soo-sung, Lim Jung-kyu

Invited Artists for ccul Kim Hyung-kwan, Park Byung-choon, Motoe, Shin Eun-kyoung

ccul

꿀 ccul, meaning honey in English, is a art space (representative Choi Jung-hwa) and newly opens with the pool season opening exhibition. Following up his previous trial of '*Sal* Bar' (1996-2008, means flash bar) for practical engagement with art and social system, the artist Choi Jung-hwa, once again organizes his perspective for restoring the relationship between arts and everyday life. The physical space of ccul has preserved an original building structures, which were once used for a collective of local stores: such as a Chinese restaurant, a rice store, a flower shop, a photo processing lab and a residence for office staffs. Replaced by newly designed spots within the whole space, there are Hannam bar, Gaseum Lounge, Gaseum Studio and Kkot-bbang and "ccul pool 꿀풀, meaning honey grass in English (experimental art project space of pool)". Ccul, therefore is a reversed art museum where actualizes the artist's statement by Choi Jung-hwa: "Aesthetic intention of civilians and a balance. Process is more important than the result. Give them a chance and copy them. Practice everyday life. Everyday life is the present stage for art. A battlefield."



꿀 옥상에 설치된 모토 Motoe의 '콘과 함께 CONICONI'(2010) 중 '방-콘과 함께 room coniconi', 옥상 야외 설치

'room-coniconi' among the 'CONICONI'(2010) by Motoe installed in rooftop, ccul









꼴 곳곳에 설치된 최정화의 가구 콜렉션
Furniture Collection by Choi Jung-hwa, ccul



김형관, anything anyway, 2010, 옥외 타일 위 테이프 설치, 가변크기
'anything anyway' Kim Hyung-kwan, 2010, colored tape on tile, dimensions variable



박병춘, 소녀산수도, 2010, 나무 벽에 수묵, 채색, 280x580cm 디테일 뷰
Park Byung-choon, 'Landscape with Girls', 2010, ink and watercolor on wooden wall, 280x580cm, detail view



신은경, 수집가, 2010, 설치, 가변크기
Shin Eun-kyung, Collector, 2010, installation, dimensions variable

꿀풀

이러한 맥락 내에서 풀은 꿀과 기획 파트너쉽을 맺고 꿀 내에 풀 기획 전용 공간인 "꿀풀"을 운영합니다.
꿀풀은 창작 레지던시도, 전시장도, 갤러리도, 기획 사무실도, 작업장도, 아트 숍도 아닌 이 모든 성격의 혼성 공간으로서 여기서는 문화인들의 작업 과정, 작품, 생업활동이 펼쳐질 뿐 아니라 이들 간의 각종 생활협동 활동, 만남 자체가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꿀풀은 미술창작현장의 문화생산자들에게 묵과할 수 없는 문제로 등장한 창작 노동과 생계형 노동 사이의 괴리에 대한 문제의식을 다루고자 합니다. 창작 외 노동은 어떻게 또 하나의 작업이 되게 할 수 있을까. 아니 '창작'이라는 허울을 쓰지 않아도 어떻게 창의적일 수 있으며 그 나름의 창의적 기획을 상상할 수 있을까.
꿀풀 프로젝트는 창작과 생계형 일 간의 경계를 넘나드는 문화생산자들의 이른바 "비공식"적인 각종 노동 행위를 대안적으로 제시함으로써 미술, 일상, 창작, 생활 간의 힘겨운 현실적 공존을 생산적으로 풀어가 보고자 합니다.
꿀풀은 문화생산자들의 생계형 노동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그 노동을 창의적 작업 혹은 또 다른 잠재적 작업으로 유도하는 방법은 없는지, 잠재적 작업이 될 수 있는 생계형 노동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와 같은 매우 현실적이고도 절박한 질문을 던지게 될 것입니다.

ccul pool

According to the above context, pool is going to organize the project space "ccul pool" in ccul, wherein the co-curatorial partnership is established. Ccul pool is not an arts residence, a gallery, a showroom, a curatorial office, a studio nor an art shop, but only a hybrid space combining all of above characteristics. Allowing the cultural producers to be gathered together, their working process, works, livelihood collaborative activities and all of their encounters will be unfolded here. Ccul pool attempts to problematize the gap between the labor as arts production and the labor as livelihood, which cannot postpone or disguise any more for cultural producers from the art production scenes. How can we then connect both a labor as livelihood and a labor as arts production, to create another form of art production? Or, how can the ordinary labor be creative without being labeled as 'creation' and also, how can they imagine their own creative curatorship? Alternatively suggesting so-called 'informal' kinds of labor by cultural producers whom frequently deals both kinds of labors, ccul pool project is going to untie the realistic question about their reality between art, everyday life and art production. This attempt must be an urgent question toward the reality where we are living now: for changing the cultural producer's concept about the labor as livelihood, how can we encourage the labor to flow into a kind of creative production or another potential work, and what labors as livelihood can be reproduced as a potential art work.



꿀풀 외관
Exterior view of the ccul pool



쪽방들이 연이어 있는 반지하 공간 꿀풀 실내
Interior of the semi-basement floor of the ccul pool







김상돈, 장미의 섬,
2009-10, 사진, 오브제

Kim Sang-don, 'Rose Island',
2009-10, photo, obj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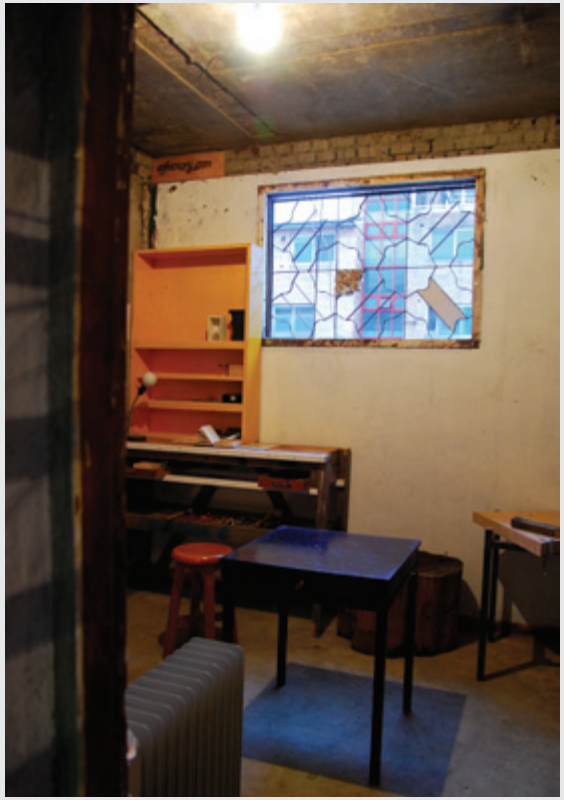






김홍빈, 슈퍼히어로 아님, 2009-10, 설치, 혼합매체, 가변크기
Kim Hong-bin, 'Not a Super Hero', 2009-10, installation, mixed media, dimensions variable





김상진, agfactory
Kim Sang-jin, agfactory





임정규, 환상 패러디, 2010, 종이 위에 색연필 드로잉, 수채화
Lim Jung-kyu, 'Fantasy Parody', 2010, drawing of colored pencils on paper, watercolor painting





(앞) 김상돈, 장미의 섬,
2009-10, 사진, 오브제

(front) Kim Sang-don, 'Rose Island',
2009-10, photo, objet



이수성, Power Pipe, 2010, 녹슨 파이프 광내기
Lee Soo-sung, 'Power Pipe', 2010, high polishing of rusty pipe



이수성, 타틀린을 위한 기념비, 2009, 설치
Lee Soo-sung, 'Monument for Tatlin', 2009, installation



권용주, 지하봉재무지개, 2010, 설치
Kwon Yong-ju, Rainbow from Underground Needlework, 2010, installation



이수성, 타틀린을 위한 기념비, 2009, 설치
Lee Soo-sung, 'Monument for Tatlin', 2009, installation





윤지원, 이수성, everything's gonna be alright, 2010, 설치
Yoon Ji-won, Lee Soo-sung, 'everything's gonna be alright', 2010, installation



꽃빵 빠
Bar Kkot-bbang









하하하 下下下(낮추고 낮추고 낮추기) 프로젝트 – 김상돈, 불협화음 정원, 2010,
폐 플라스틱 대야 화분과 입양화분, 기증 씨앗으로 만든 풀 정원 및 조경 ⓒ 풀, 서울

HAHAHA 下下下 low low low project-Garden of Discord, 2010, Kim Sang-don,
made by used plastic pots, adopted flowerpots, and donated seeds ⓒ pool, Seoul

Pool
풀

서울중앙우체국
요금별납

풀
서울시 종로구 구기동 110-803
T 02 396 4805
F 02 396 9636
www.altpool.org
altpool@altpool.org

꿀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683-31
가슴라운지
M 010 3860 7972 / 010 2557 7251
꽃땅 빠, 가슴 스튜디오
M 010 750 25515 / 010 6475 9868
http://cafe.naver.com/itwhoney

풀 약도



꿀 약도

